

The Architectural Review

Domus

건축문화

A+U

신건축

## The Architectural Review

97년 2월호

2월호에서는 건축에 있어서 역사의 문제를 재고하면서 과거 건축물들에 대한 보완과 증축 문제를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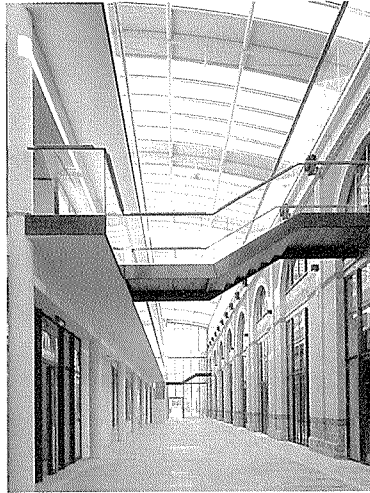


### 과거와 현재

전통건축의 어휘에 대한 무분별한 도용이 난립하고 있는 시대에 옛 건축물들은 그 진위성을 통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옛 건축물은 시대적으로 실제 사용에 부적합하거나 물리적으로 노화됨으로써 건축적인 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그 용도와 구조를 변경, 보강하는 증축, 보수 개축이 이루어지는데 있어, 이러한 현대성이 과거와 절묘한 대조를 이루면서 각자의 뚜렷한 영역을 형성

하는 예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과거 건축에 대한 완전한 파괴와 더불어 심부르고 어색한 증축 또한 돌이킬 수 없는 일기에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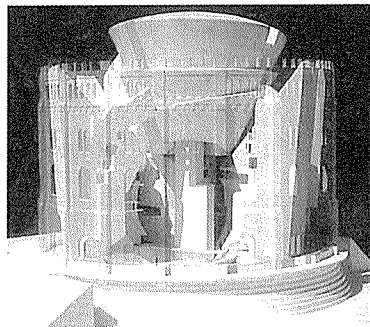
▶ Reichen & Robert의 프랑스 누와실 네슬레 본부 증개축안



프랑스 누와실 네슬레본부 증개축안 (Reichen & Robert 작)

프랑스 마르네 라 발레의 누와실에 위치한, 벽돌과 철재로 지어진 옛 초코렛 공장은 산업혁명을 대표할 수 있는 건물로, Reichen & Robert에 의해 새로운 본부건물로 사용되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네슬레 사로서는 아주 의미있는 일이다. 철재의 유기적인 사용에서 보이는 옛 건물의 흔적은 유리와 철재에 의한 기하학적인 증축 부분과 대조를 이루면서 품위와 속도감, 경제성을 두루 갖춘 건축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Eric Owen Moss의 오스트리아 빈 가스 저장소 재사용 계획안



오스트리아 빈 가스 저장소 재사용 계획안 (Eric Owen Moss 작)

Eric Owen Moss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옛 가스 저장소 내부에 다시 하나의

켜를 삽입함으로써 그것을 실용화시키는 다소 실험적인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기하학적인 원통의 옛 외관에 원추형의 뒤틀어진 볼륨을 삽입함으로써 둘 사이의 충돌과 상호 침투를 통해 그 재생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 Bernard Quirot과 Olivier Vichard에 의해 수족관으로 다시 태어난 프랑스 베상콩에 있는 옛 요새, Claus and Kaan이 설계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주거 증축안, Louis Kloster의 노르웨이 예르 솔라 교회 증축안, 런던 OXO 타워에 대한 Lifschutz Davidson의 다용도 증축 등은 시대적으로 한정되는 옛 건축물들의 사용을 재생시키면서 옛 가치를 보존하는 좋은 예를 보여준다. 그 외에 독일 베를린 19세기 역 건물을 개조하여 현대 박물관을 설계한 Josef Paul Kleihues의 작품, Hubert-Jan Henket의 네덜란드 하렘 미술관 증축안이 소개되었다.

▶ 또한 파키스탄의 힌두 쿠쉬에 있는 요새 건물과 인근 지역의 위생 시설에 대한 자생적인 개축은, 고대 유적의 보존과 함께 21세기에도 실제적 삶이 이루어질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 미국 내슈빌 오프리랜드에는 최근 델타라고 하는 실내 유원지가 생겨났는데, 거대한 유리 구조물 속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미시시피 강가의 전통적 건축물들은 그 실현 자체가 우스꽝스러우며 더욱이 자의적으로 해석된 고건축물들에 상업시설을 들여놓음으로써 그 유치함이 극에 다다르고 있다. 이와같은 개발이 향후 하나의 모델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건축의 과거에 대한 이러한 유희적, 소극적 방안은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 인테리어 디자인

▶ 스페인 마드리드의 국립 도서관 내부는 Jeronimo Junquera, Estanislao Pérez-Pita에 의해 옛 건물의 언어를 모사하지 않으려는 강한 기하학적 형태의 개축이 이루어짐으로써 활성화되었으며,

▶ 18세기 아담 형제에 의해 지어진 런던 Royal Society of Arts 대회의실은

수차례의 보수를 거쳤고 최근에는 John McAslan & Partners에 의해 현대적인 천장 구성이 부가되었다.

### 신재료 소개

다양한 조명기구들의 특징과 구입처가 소개되어 있다.

### 신간 건축도서 비평

〈루이스 면포드와 미국 모더니즘〉, 〈리처드 마이어의 주택 작품들〉, 〈존 소운의 묘지와 기념물 작품들〉 등 신간 서적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비평이 수록되어 있다.

## The Architectural Review

97년 3월호

3월호의 테마는 「거대한 건축」으로, 근대 도시의 발달과 함께 활성화된 이들 건축물들을 통해 건축에 있어서 크기가 갖는 의미와 그 예들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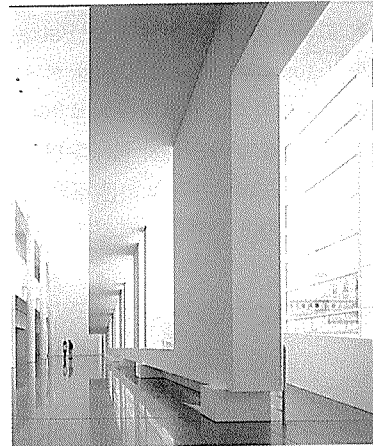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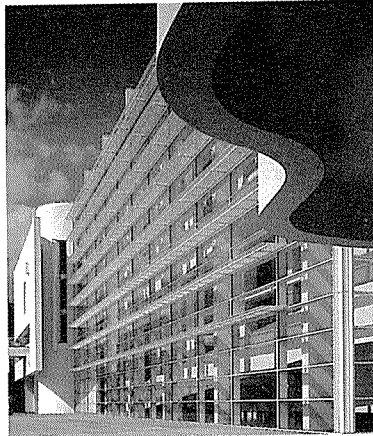


### 거대한 건축

고대 바벨탑의 건립 시도에서도 보이듯이 거대한 건물은 정치적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와 동시에 그것은 인간의 기술적 한계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근대의 기술과 함께 출현한 마천루 건축 등이 그 좋은 예이며,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에 의해 주도되었던 대규모 사업의 일환인 라 데팡스나 국립도서관 등은 근래의 예라고 볼 수 있다.

도시의 크기와 인구가 팽창하면서 거대한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거대한 건축물은 초인간적인 스케일로 인해 삭막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예가 많지만, 다음과 같은 적합한 디자인은 상업적이고 기능적이면서도 인간적 따뜻함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미술관(Richard Meier 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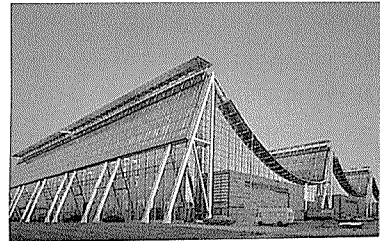
▶ Richard Meier의 스페인 바르셀로나 미술관

바르셀로나의 고밀도 지역에 완공된 바르셀로나 미술관은 이전의 Meier작품들이 가졌던 공간과 빛, 명확한 기하학적 구성이 또다시 성공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그 내부를 구성하는 다양한 언어들은 근대성의 현대적 적용의 좋은 예를 보여주면서 건물 전체의 크기와 분리된 다양한 스케일과 느낌의 공간들을 연출하고 있다.

▶ Thomas Herzog의 독일 하노버 무역 박람회장

엑스포 2000이 열릴 이 거대한 건물은 구조 기술에 바탕을 두면서도 그것에 종속되지 않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 Tadasu Ohe/Plantec의 일본 시가



독일 하노버 무역박람회장(Thomas Herzog 作)

### 환경과학연구소

전체 프로그램을 몇 개의 단위 건물로 나눈 후 그것들의 비정형적인 배치를 통해서 인간적인 느낌을 살려주는 연구 단지이다.

▶ Denton Corker Marshall이 오스트레일리아 멜보른에 세운 전시회관과 고층빌딩은 각각 기능과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수평, 수직성이 강조된 작품들이며, 스웨덴의 고덴베르크에 있는 Niels Torp Arkitekter의 버스 터미널은 보통 차갑고 그리 유쾌하지 못한 느낌을 주는 거대한 터미널의 문제를 구조 자체의 미적 효과를 통해 현대적으로 해결된 예이다. Matthew Priestman Architects + Boje Lundgaard & Lene Tranberg의 덴마크 코펜하겐 자료 보관소는 전체의 매스를 구축하는 면과 기능적인 볼륨을 분리시켜 주고 있으며, Norindar-Hamzah-Yeang Architectural Engineering Design의 중국 상해 타워는 거대 건축물에 자연환경을 도입하는 실험적인 작품이다.

▶ 여기에 반해 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퍼에서 완공단계에 있는 Caesar Pelli의 쌍둥이 오피스 타워는 지역적 맥락에 전혀 맞지 않은 예라고 볼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의문이다) 건물로 기록될 것이기는 하지만, 평면에서 보이는 원과 사각형의 조합들은 이슬람교의 아라베스크 무늬에서 온 것이며, 입면에 차양을 첨가하여 지역 기후에 적합하다는 식의 피상적인 설계 자세는 매우 안이하고 무책임한 것이다.

### 인테리어 디자인

▶ 런던의 한 오래된 창고를 예술가의 작업 전시실 및 생활공간으로 개조한 John Pawson의 설계는 백색면과 나무

재료를 활용하여 작품의 전시에 알맞은 밝은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 런던의 창고를 개조한 또하나의 예인 Brookes Stacey Randall Fursdon의 설계는 반대로 철재, 유리 등 가벼운 재료를 통해 자연광이 가득찬 역동적인 다락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 신재료 소개

근래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들의 외장 재료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 신간 건축도서 비평

〈건축과 조경〉, 〈19세기의 건축〉, 〈할리우드로부터 배우기〉, 〈근대의 역 건축〉 등 신간에 대한 비평이 개재되어 있다.

## Domus

97년 1월호

올해의 첫 호에서 DOMUS는 지구 환경 보존의 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재생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재생이 갖는 전반적인 의미 및 의의와 더불어, 건축에 있어서의 재생과 모범적인 예들, 기타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재생적 활동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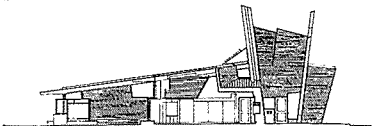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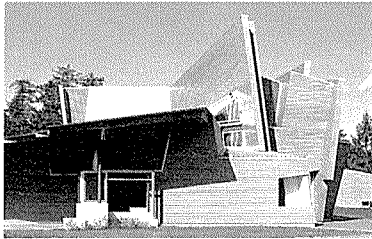
재생이라는 개념은 지구의 생태 보존이라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며 인류학적 고찰과 함께 인간과 그 주변환경의 상호관계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재생이 가능한 디자인은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진보라는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균형이 요구되어지며, 그것은 후기 산업사회에서 미학이라는 분야를 통해 가장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생은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포기나 단절을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갖는 정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프로젝트

근대건축은 도시적 형태를 통해서 건축의 문제들을 해결하였으나, 전통과 관습과의 단절을 가져왔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옛 가치를 재생시켜 사용할 수 있는 건축이 요구되어지며, 그것은 극단적인 상징적 의미를 갖는 다음의 개별적인 건축물에 의해 촉진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 브리티쉬 콜롬비아에 있는 Patkau Architects의 스트로베리 베일 학교는 철재, 유리와 더불어 목재를 사용하여 다소 무질서해 보이는 배치 형태를 만들어냄으로서, 도시와는 전혀 다른 주위의 불규칙적인 자연 경관과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콜롬비아 스트로베리 베일 학교 (Patkau Architects 作)

▶ 농장이라는 건물은 이전 시대의 형태를 그냥 답습하거나 산업화된 농업을 위장시키도록 자연적인 느낌이 나도록 설계되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루스 테나우에 있는 Roland Gnaiger의 농장은 대지 환경에 부응하는 재료와 형태를 사용하면서 노동, 동물들과의 관계, 공동작업 등의 사항들도 디자인에 반영시키고 있다.

▶ 그리스 산토리니에 있는 Agnes

Couvelas의 주택 설계는 고대 유적과 그것을 관광 산업에 이용하는 국가 정책에 의해 이중의 제한을 받는 그리스의 상황에서, 자연 조건에 부응하는 형태 디자인이라는 중심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입방체들의 상호 교차라는 독특한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스 산토리니의 주택(Agnes Couvelas 作)

▶ 독일 메트만에 있는 Günter Zamp Kelp의 네안데르탈 박물관은 재생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의 튜브가 둘러져 쌓여있는 단일한 형태로, 인류역사 발전과 그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 이벤트

▶ 1996년 여름 뉴욕 휘트니 미술관에서는 1900-1960년대의 뉴욕에 대한 사진 작가들의 사진, 판화, 회화와 영화들이 전시되었다. '뉴욕, 뉴욕, 욕망의 도시'라는 제목으로 열렸던 이 전시회는 그 자체가 하나의 팝아트였던 뉴욕의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 "시간과 패션"이라는 부제가 붙은 '96 비엔날레에서는 고건축의 이미지가 강한 피렌체의 곳곳에 있는 미술관들에 현대적인 설치 미술들이 전시되어 극적인 대조를 보여주었다.

### 기타

그 외에 ▶ Ezio Manzini, Jacqueline Aloisi de Larderel, Kapyla Vatsyayan 등의 재생 개념에 대한 다양한 에세이 ▶ 자동차 산업에서 나타나는 재생 개념 ▶ 반대로 자동차 없는 삶을 지향하는 브레멘의 모델 ▶ 재생 용품으로부터 제작된 일상 용품들 ▶ 밀라노의 예술 단체 Branco에서 제작한 폐품 활용

오브제들 ▶ 장갑으로 기이한 작품세계를 창출하여 국제적 명성을 얻어가고 있는 한국의 미술가 정경연 ▶ 건축과 주위 환경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두 개의 상이한 프로그램을 수용한 포르투갈의 Maria João Lima 데뷔작품 ▶ 재선에 적합한 건축재료들의 목록 ▶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등 남미지역에 분포된 성지의 위치와 간략한 소개 ▶ 〈자연친화적 건축〉, 〈Ludwig Wittgenstein의 건축〉, 〈유치원 설계〉 등 저서에 대한 비평이 수록되어 있다.

## 건축문화

97년 4월호

이번호에서는 작품 특집으로는 長岡文化創造포럼(오까베 노리아끼), 유유후루사또 회관(아라이



치야끼), 토토로 유치원(고베야시 쿠츠히로), 大阪동(日建設), 東京오페라 시티 빌딩(東京오페라 시티 설계공동기업체) 등이 소개되었으며, 특집으로는 아라카와 슈사꾸와 Madline Gins의 '건축혁명'이 다루어져 그들의 도시계획 프로젝트와 작품 2점이 소개되었다.

### 특집

아라카와 슈사꾸와 Madline Gins의 건축혁명 - 이들의 모티프는 '身體'와 '知覺'이다. 이들은 기존의 건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건축론)에서 인간존재라는 것에 그 사고의 뿌리가 있음을 지적, 그들은 건축에 있어서 순수한 입장을 취하면서 기존의 존재론적 입장의 건축에 대한 해석에 반기를 들고 있다. 이들은

논리적 접근을 시도하며 그들만의 '존재론'과 그들만의 '건축'을 사용하여 그들만의 것을 실현하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사람은 이미 존재해 있는 것이 아니며 건축은 사람과 별개의 것으로 존재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사람과 건축은 주체-객체의 관계가 아닌 주체-객체 미분의 상황인 것이다.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 나가듯이 환경도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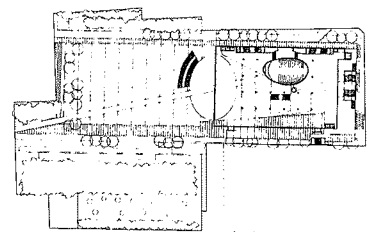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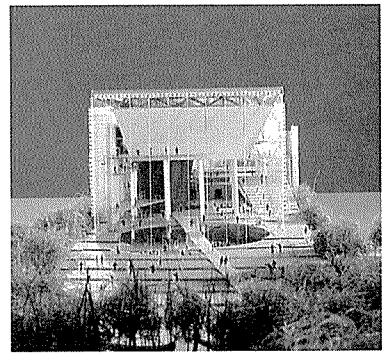
▶ Critical Resemblances House  
이 집은 먼저 여러개의 입구를 갖는다. 벽면은 평면(일반적인 주택의 프로그램을 지칭)에 선행하고 있다. 벽면들은 미궁과 같은 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2층은 각이진 형태로, 1층과 지하층은 곡선의 벽들이 미궁을 형성하여 서로 어긋나고 있다. 거실에서 식당까지 가는 데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집 전체를 다 돌아보는데-길을 잃는다면-하루가 걸릴 지도 모른다. 집안에 놓여진 가구들은 벽들이 관통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쓸모를 상실하게 하고 있다. 부엌과 화장실의 구분과는 상관없이 벽이 지나가고 있으며 따라서 부엌과 화장실은 서로 부분적으로 같은 공간에 놓이게 된다.  
집은 집 자체로 주인이 되고 있다. 이 집은 작가가 말하고 있는 '신체'를 획득하게 된 것이며 원래의 주인이었던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게 될 것이다.

### 작품특집

▶ 長岡(나가오카)文化創造포럼 (오까베 노리아끼 설계)

이 도시 재개발 계획은 옛날 나가오카城이 있던 사이트에 계획되어졌다. 21세기의 나가오카의 문화의 중심지로서 계획되어진 이 시설은 다양한 문화시설을 포

함하고 있다. 작가는 '창'과 같은 건물로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외부와 내부가 침투하는 공간을 통해 건물이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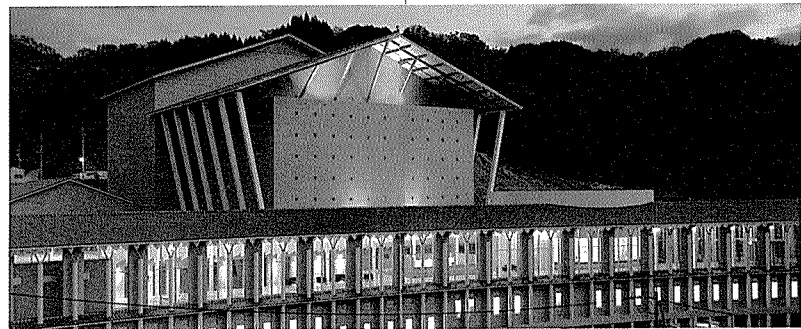
長岡文化創造 포럼(오까베 노리아끼 작)

가 쉽고 사용하기 쉬우며 들어서기 편안한 것이 되길 원했다고 하고 있다.

작품의 구성은 컨벤션룸, 교류 로비, 정보프라자 등을 포함하는 최하단부인 기단부와 그 위로, 영상 씨어터, 미팅그룹, 커뮤니케이션룸등이 구성된 CONE, 멀티 FOYER, 시민 휴인 떠있는 볼룸이 차례로 포개어지며 이것들을 외피가 감싸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 유유후루사또 회관(아라이 치야끼 설계)

작가는 자신의 건물을 mediation으로 이름지었다. 이 프로젝트는 주변 7개 마을이 공동으로 건축에 참여하는 일본에서는 보기드문 경우이다. 작가는 이 건물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뿐 아니라 여러 마을 공동의 것으로서 mediation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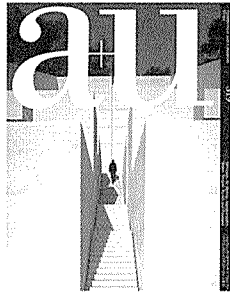


유유후루사또 회관(아라이 치야끼 작)

a+u

97년 4월호

이번호에서는 주로 채플 및 교회, 주거 건축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소개된 작가들과 그 작품들은 Christian Kerez, Rudolf Fontana의 Chaple과 mortuary, Matti Sanaksenaho의 The Chaple과 Turku, Richard Meier의 The Church of the Year 2000, Marc Barani의 Saint Pancrace Cemetery Extension이며, 주거를 다룬 작가들로 Annette Gigon & Mike Guyer와 3명의 작가와 그들의 작품들이 소개되었다. 에세이로는 Peter Lizon의 "mies Imperative: A Total Design Villa Tugendhat in Bruno is Open to Public"이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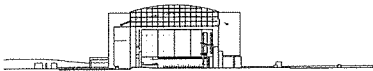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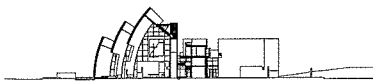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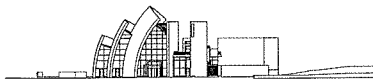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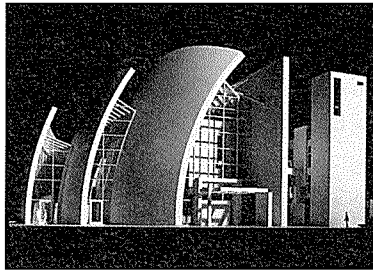
이 번호에서는 주로 채플 및 교회, 주거 건축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소개된 작가들과 그 작품들은 Christian Kerez, Rudolf Fontana의 Chaple과 mortuary, Matti Sanaksenaho의 The Chaple과 Turku, Richard Meier의 The Church of the Year 2000, Marc Barani의 Saint Pancrace Cemetery Extension이며, 주거를 다룬 작가들로 Annette Gigon & Mike Guyer와 3명의 작가와 그들의 작품들이 소개되었다. 에세이로는 Peter Lizon의 "mies Imperative: A Total Design Villa Tugendhat in Bruno is Open to Public"이 소개되었다.

▶ Richard Meier의 Church of the Year 2000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뉴욕의 아키텍처럴 리그에서 '2000년의 교회' 컴페티션전이 열렸다. 로마 교회구의 제공으로 열린 '2000년의 교회' 지명 설계경기에 출품작이 전시된 이 전시회에는 6명의 건축가, 안도타다오, Günter Behnisch, Santiago Calatrava, Peter Eisenman, Frank O. Gehry, 그리고 Richard Meier의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이 설계경기에서 1등을 한 Meier의 안은 기하학적 형태를 조합하여 2개의 주요한 프로그램인 교회와 커뮤니티센터를

병치하고 각각에 특징적인 공간을 만들어냄과 동시에 전체로는 균형잡힌 비례를 보여주고 있다. 교회부분에는 구의 파편을 세 겹으로 조합함으로써 삼위일체를 나타내고 있다. 커뮤니티 시설이나 배면에 배치된 연못을 포함하는 이 계획안은 기독교의 메타포로 구성되어 있다. 거대한 셸로 구성된 네이브는 빛으로 충만하여 수직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는 신성한 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2000년의 교회(리처드 마이어 작)

▶ Marc Barani의 Saint Pancrace Cemetery Extension



Saint Pancrace 공동묘지 증축(Marc Barani 작)

Saint Pancrace 공동묘지의 증축인 이 작품은 4개의 테마를 갖는다. 작가들의 바램은 우리의 운명에 대한 질문이 더져지는 죽음을 위한 현대적 장소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의 테마는 자연과 죽음에 대한 상징적 관계, 내세를 상기시키기 위해 정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 죽음의 존재를 강조하기 위해 현대의 기계적인 표현을 변형시킬 수 있는 개성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 생과 사의 공간을 대비시키는 데 있어서 주변의 자연경관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 Annette Gigon & Mike Guyer의 Bro Iberg 집합주택 (스위스 취리히 근교, 1990-1996)

포디움을 갖는 이 계획은 포디움에 半私人的인 공간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하부분이 공동의 주차장인 이 포디움은 3개의 독립된 동들을 연결시키고 있으며 마련된 半私人的인 공간은 합판으로 만들어져 개개의 주호에 할당되고 있다.

▶ Marc Mimram의 20 Residence - 72Boulevard Barbes in Paris (프랑스 파리, 1995)

작가는 '파사드의 해부학'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파사드의 창들은 레일이 설치되어 수직으로 움직이는 석재로 된 덮개에 의해 개폐된다. 각 주호에 있어 각기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될 이 석재덮개는 전체적으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건물의 표정을 만들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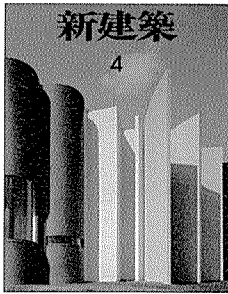
▶ Matti Sanaksenaho의 The Chaple (핀란드 Turku, 1995- )

그의 의도는 커다란 조각품을 만들어내고 작은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작가의 청록색의 작품 모형을 보고있노라면 미니멀리스트의 작품이 연상된다. 채플의 형태는 예술로서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목사의 설교는 예배당의 알레고리인 것이다. 즉 모든 것이 말해지지 않고 상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 신건축

97년 4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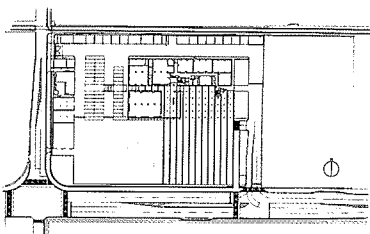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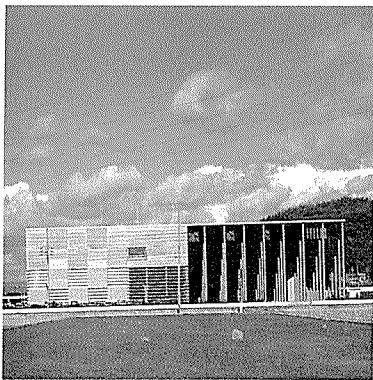
이번호에서는 작품으로 는 岡山西 (오까야마니시)경찰서 (아라따 이소자끼 설계), 카즈사



아카데미홀(사카구라 건축연구소 설계), 건축문화에도 소개된 아라카와 슈사구의 작품 및 유우 후루사또회관, 東京오페라 시티 빌딩 등 5개의 작품을 포함한 17개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건축논단에서는 '和風을 생각한다'가, 특별기사는 '기억의 좌표' - 神戸異人館수복계획이 게재되었다.

### 작품

▶ 오까야마니시 경찰서 (아라따 이소자끼 설계)



오까야마니시 경찰서(아라따 이소자끼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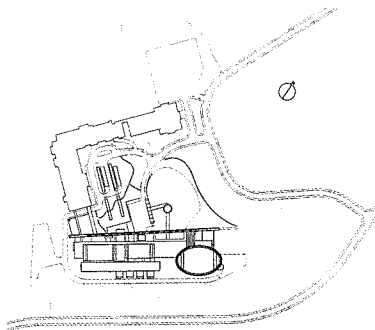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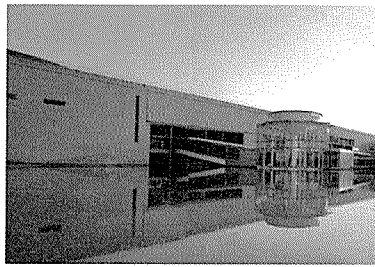
허와 실의 2분법적 공간구성을 보이고 있는 이 작품은 열주로된 필로티와 그 배

면의 아연합금판으로 마감된 박스형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된 작품의 구성법은 '흐름'과 '절단'의 수법으로, 2분법적 구상이다.

▶ 카즈사 아카데미홀 (사카구라 건축연구소 설계)

작가는 초월론적 기능을 언급하면서 이 기능이 각 빌딩타입을 나누게 하는 根底가 된다고 하고 있다. 이 기능이 되는 것들을 가시화시키기 위해 각 기능공간을 조형적으로 분절화시키고 그 연관관계를 가시화시키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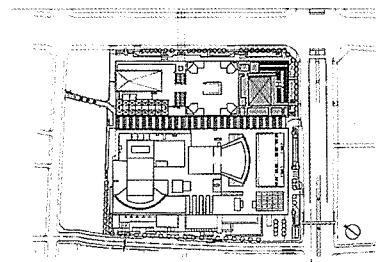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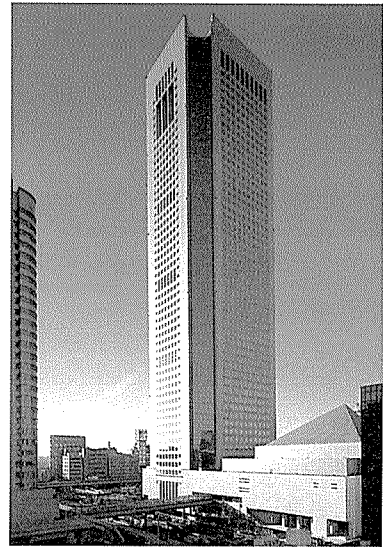
이를 통해 작가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19세기 말 이래로 이루어진 기능주의의 도식을 역전하는 구도인 '기능은 형태를 따른다'를 실현하는 것이다.



사카구라 아카데미홀(사카구라 건축연구소 설계)

▶ 東京오페라시티 빌딩 (東京오페라시티 설계공동기업체 설계)

지상 54층의 고층동을 중앙에 배치하고 그 북측에 콘서트 홀, 남측으로는 썬큰가든과 아트 뮤지엄이 위치한다. 고층동은 18, 28, 38, 48층에 2개층 분의 층고를 갖는 스카이 로버를 두어 외관에는 리듬을 주고 있다. 콘서트 홀의 천정은 변형된 피라밋형으로 톱 라이트가 설치되어 있다. 벽면과 천정 모두 오크로 마감하여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동경 오페라시티 빌딩

### 특별기사

▶ '기억의 좌표' - 神戸異人館수복계획 (이루까 설계집단 설계)

일본의 北野·山本지구는 도시경관형성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본에 전국적으로 알려진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역이다. 이곳에 형성되어있는 異人館街는 1858년 구미 5개국과의 수호조약 이후로 형성된 외국인 주거지역이다. 본 기사는 1995년의 대지진후 파괴된 異人館들의 수복작업들을 다루고 있다.

### TOKIO 계획 1997

▶ Project-04 ONE ROOM SKYSCRAPER

사람과 도시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건축으로서 구상된 One Room Skyscraper는 20세기의 스카이스크레이퍼가 만들어낸 균질한 도시풍경을 변화시킨다. 내부는 미공도시와 같은 구조로 복잡한 사람들의 네트워크의 집단을 가능하게 한다. 정보도시에 대응하는 개인을 위한 새로운 빌딩타입인 것이다.

(번역 : 최원준, 강상훈)